

월간

충현

2

발행인 김 창 인
편집인 위 영 환
주 간 신 성 중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5가 36
27-9937 · 9738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5년 2월 23일 발행
통권 제 14호



미래 지향적 교육

천국일꾼을 바로 키우려면

충현교회의 교육목표는 교회설립 10주년이 되는 때에 김 창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일꾼을 키우자」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의 「천국일꾼」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이는 그리스도의 주권(lordship) 확장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남녀 일꾼을 말하며, 「키운다」는 것은 위의 목적을 위한 개혁신주의적 신앙교육과 생활훈련을 말한다.

천국일꾼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우리는 적어도 다음의 세가지를 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는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에 기초한 신앙 및 생활교육을 해

야 한다.

둘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소요리문답을 우리의 고백으로 믿고 이 신조에 기초한 개혁주의적 교육을 해야 한다.

셋째 5천만의 복음화와 나아가서는 동남아의 복음화가 충현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마 28:18-20)으로 믿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 생명을 바치는 전적 헌신(total commitment)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과거 지향적 교육을 해왔다. 따라서 교회는 과거에 알맞는 일꾼들을 키움으로써 미래의 한국 교회들 담당할 수 없는 <유식한 병신들>을 키워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충현교회는 과거 지향적 교육에서 미래 지향적 교육으로 과감하게 탈바꿈하여 미래의 한국교회와 사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창조적 엘리트들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혁명」이 이루어지는—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간>



□ 목 차 □

<설교> 김재창 목사	3
<기관소개⑥> 구역권찰회	4
<메지저> 해외복음선교회원에게	5
특 집 1975년은 이렇게	
□ 도약에의 발돋움	6
□ 실문을 통해 본 주교각부 계획	9
<평가> 1975년 겨울어린이성경학교	10
<컬럼> 이유 있는 단절(斷折)/정은표	11
<단평> 오웅기	11
<통신강좌> 교리공부④	12
<구역공과> 3월분	13
<교회 뉴스>	44

□ 2월의 행사 □

- 2일/ 정기제직회
- 9일/ 남전도회 헌신예배
- 9일/ 남전도회 월례회
- 16일/ 교육위원회 월례회
- 16일/ 여전도회 월례회
- 23일/ 구역 권찰회 월례회
- 23일/ 교육연구회 회의
- 25일/ 정기당회
- 24일-26일/ 중·고등부 부흥회

◇ 충현 김창인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 매 주 화요일 오전5시45분

승리자의 영광을 얻기까지

김 재 창 목사



-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이 피로 속죄함 받은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가 된 것이며 모든 환란과 시...◇
- ◇...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성경에 나타난 승리자를 네 가지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① 요셉과 다니엘처럼 환란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환경을 이긴 사람, ② 다윗이나 여호수아처럼 원수와 당당하게 싸워 이긴 사람, ③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정복한 사람, ④ 바울 사도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입니다.

1975년 새해에도 충현의 모든 성도가 이같은 승리자가 되어 풍성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승리의 비결을 제시하려 합니다.

1. 어린양 예수님의 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피흘림이 없이는 사람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는 신기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이 피로 속죄함받은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가 된 것이며 모든 환란과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성도의 승리에 대해 바울 사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롬 8:37)”고 개신가를 불렀으며, 요한 사도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16:33)” 하신 말씀을 생활로 증거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 앞에 마귀는 굴복되고 우리의 승리는 가능합니다.

2.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생명양식이며 하늘나라 시민된 우리의 생활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 정병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무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깊이 묵상하며 배우고, 배운 바 그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허탄함을 버리고 의(義)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겹옷을 가진 자만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길 수 있으며 자기에게 부과된 인간의 본분과 성도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고 구원의 도리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충성이 꼭 요구됩니다. 나의 물질·지식·시간·마음을 아낌 없이 주님을 위해 바치는 충성도 귀하지만 이들보다 더 귀한 것은 아낌 없이 생명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충성입니다.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놓으시기까지 절말은 아들로 충성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함에 있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함시다.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많거나 적거나 모든 힘을 다하여 충성합시다. 환경 여하에 동요되지 말고 죽는 순간까지 충성합시다. 그리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2:10)”고 약속하신 복을 받으시라. 승리자에게는 기쁨·존귀·영광이 빛나는 면류관과 함께 천국에서의 영생의 기쁨이 따릅니다. 그러나 패배자에게는 수치·고생·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승리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올해는 주님의 피가 살아 생동하는 생명력 있는 역사로 몸된 교회가 도약적 발전을 이룩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충성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승리자의 무궁한 복을 누리시는 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운영의 세가지 목표

백 성 룡 목사

□ 교회가 건전하게 부흥되는 길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와는 다른 길이 없다. 사람의 지식이 나 지혜로 교회가 잘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쇠퇴케 할뿐이라는 것이 역사적 실증이다.

□ 성령의 역사는 모든 성도들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써의 자각을 갖게 하며 소명감을 불러일으켜 갖인 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돌리는 헌신자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헌신하려는 사람들이 생길 때 교회는 생동하는 참 모습으로 나타나며 생동하는 교회가 바로 건전한 교회이다. 이는 마치 모든 지체에 흠이 없는 건강한 사람처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신앙위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 때에 교회의 참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엡4:15-16).

□ 교회가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나 참된 것이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일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기에 보이는 교회는 항상 성경에 근거한 개혁운동을 꺼리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개인신앙 성장을 위한 성경연구가 강조되며 신령한 사랑의 교제와 헌신적인 봉사활동에 역점을 두고 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개인신앙의 성장·성도의 교제·교회사업의 참여라는 세가지 목표를 두고 구역운영이 되어야 된다.

1. 개인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자

한마디로 교회 교육사업에 협력하자는 것이다. 성경공부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모든 구역원들이 성경공부에 힘쓰도록 권하고 또 편의를 도모해 주는 봉사를 하자는 것이다. 즉 교인들이 자기 연령에 맞는 주일 학교 각부에 들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특히 새신자를 친절히 안내하여 성경과 교리를 배워 빠른 시일에 교회생활에 익숙하도록 협력한다. 또 성경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입학을 추천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 통신 강좌를 통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권하며 경우에 따라 문제지를 배부하며 답안지를 모아 제출까지 하여 주어야 한다.

구역원 들로는 분들이 개인신앙 성장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교인들을 바로 인도할 때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올 것을 확신하며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려할 때 건전한 교회부흥이 기약된다.

2.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도록 힘쓰자.

성도의 교제는 복음 안에서의 신령한 교제며(빌1:5)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

도가 서로 교통하는 은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신령한 성도의 교제 없이 건전한 교회성장을 생각할 수 없다. 성도의 교제는 기본적으로 철저한 「자기성결」과 순수한 믿음에서 우러난 주님의 「사랑의 공급」에 있다. 즉 다른 사람과 깨끗한 사랑을 가지려면 자기 안에 껴림이 없도록 늘 기도하기를 힘쓰며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려는 신앙태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빌후1:5-7). 그리고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선한 마음」과 남을 나보다 높이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빌2:1-4).

구역의 확신이 있고 주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는 성도라면 성도의 교제를 기피할 까닭이 없다. 어떤 면에서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 없이는 교회에서 봉사의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도의 교제에 있어 시간과 장소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한 대로 성도의 교제는 먼저 영적인 교제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물적인 교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모임에 참여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 때는 그 시간만이라도 참여하지 못한 사람을 기억하며 위하여 기도한다. 이런 「생활 훈련」은 자신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것이다.

신령한 성도의 교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이는 일에 있다. 기도회나 말씀을 강론하기 위한 모임과 그 밖의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을 마련해야 한다(히 10:24-25). 가능하면 건구역이 구역 예배 드리기 운동과 기회 있는 대로 각 구역별로 혹은 이웃 구역과 더불어 모이는 일과 나가서는 전교회적으로 개인의 취미나 직업별로 특수한 모임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모임을 통한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화평과 신령한 유익을 목표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선명님의 도우심에 자신을 맡길 줄 아는 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부드러운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는 오히려 엄격한 규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교회의 사업과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적은 교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큰 교회는 행정력이 전체에 미치지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여 교회 발전에 부응하는 조직활동이 꼭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권찰회를 통한 구역운영이다. 이러한 권찰회는 교회의 「신경계통」으로 교인들이 알고 있어야 할 일이나 실천에 옮겨야 할 일들을 알려주며 그 시행여부를 확인·지도·감독함으로써 교회의 구성구속까지 행정력이 미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교회의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동원되어 늘 움직 움직하는 건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며 어느 지체에 마비증상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신령한 가정으로써의 교회는 항상 일을 위에서 가족적인 사랑의 분위기를 이루어 가야 한다. 이런 전제 밑에서 교회는 교육하는 신령한 학교와 그리스도의 정병을 양성하는 거룩한 훈련도장의 구실도 다하여야 할 것이다.

VIA AIR MAIL

선교자의 결심

음 선교회원 제의



■—지금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복음 전도자로서 배를 얻든지 못 얻든지 봉사하기를 결심합니까? — 내가! (봉사를기를 결심합니다.)

선교회원 여러분께

■...전도자(중인)란 『순교자(Martyrs)』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파를 위해 기쁨으로 죽을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쁨으로 죽겠습니다.)

■...선교를 위하여는 온갖 재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예수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재능(atalent)과 지식을 바치겠습니까? —내가! (나의 모든 재능과 지식을 바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다이 나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폭발, 능력의 폭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기도의 전사대원으로 선교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의 전사대원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는 전면전쟁입니다. 이 전면전쟁을 위해서는 최전방에서 특공대원으로 싸우는 서만수 선교사 내외와 홍종만 선교사 가족에게 계속적인 전쟁물자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의 복음전파를 위하여도 전쟁물자를 구입할 선교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교비를 부담하겠습니까? —내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위하여 선교비를 부담하겠습니다.)

아시아의 복음화라는 사명을 안고 우리 교회가 등남아 선교를 시작한지 여덟 7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이미 5년전 인도네시아로 서만수 선교사 내외를 보냈고 올해는 홍 종 만 선교사를 또 일본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넓은 선교의 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비록 몸은 가지 못해도 이 신성한 열전들만 보내지 말고 우리의 기도와 정성과 물건을 합쳐 모아 보냄으로 우리 모두 선교의 안전에 서야겠습니다.

오늘로 보다 향한 선교활동을 위하여

- 매월 헌자 선교 소식을 각 회원에게 직접 전해 드리겠습니다.
 - 선교사에게 보낼 회원들의 편지를 현금함이나 편지함에 넣어 주시면 선교회에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금년 1500명 선교회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올해도 성령충만한 줄자 신자가 되어 많은 바 직분에 충성을 다하며 선교 대열에 동참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5년 1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 협교회 당회장 김 창 인
해외복음 선교회 회장 김 광 철

너희는 가라, 아니면 보내라!

Go, or Send!

선교헌신작정서

선교회원이 되어 다음과 같이 매월 선교회고자 작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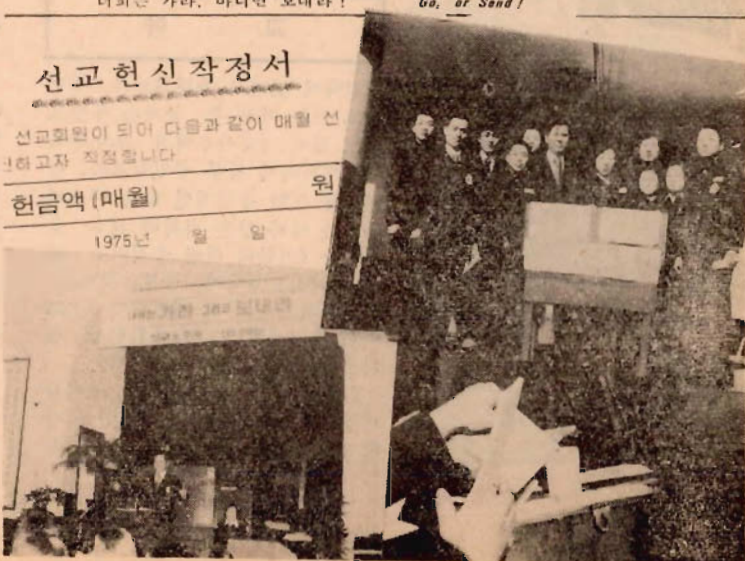
헌금액(매월)

원

1975년 월 일

※ 지난 1월 19일 선교주일 예배에 있었던 신성종 강도사의 「복음 선교를 위해 꼭 필요한 것」(행1:2-8; 2:1-21, 37-39)이라는 제목의 설교말씀 중에서 뽑은것이다.

<편집실>



도약에의 발돋움

...□22년전 18명이 모여 시작한 우리교회는 연연히 부흥에□...
 ·부흥을 거듭,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제는 우리나라□...
 ...□라의 중추적인 교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대□...
 ...□표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놓이게 되었다. 성년을 넘어서□...
 ...□차차 성숙되어 가는 이때에 1년 1년은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갖는 시기인 것이다. 이제 1975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주어진 1년을 앞에 놓고 어떤모양으로, 어떻게 주□...
 ...□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생각하면서 1975년도의 각부의□...
 ...□계획과 사업을 종합·정리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의□...
 ...□일면을 보고자 한다 □...

교육, 전도(국내외)를 통한 신앙의 생활화를 올해의 우리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문제들이 한해의 목표만이 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하나하나 안정 속에서 도약을 위한 발돋움을 하고 있는 우리교회에서 이같은 문제들을 75년도의 지향목표로 잡은 것은 특별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천국 일꾼을 키우자』라는 표어를 내걸은 지 10여년이 지났고 해외선교를 시작한 지가 어언 5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은 어디까지 왔고, 해외선교는 어떤 상태에 있으며 1975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우선적으로 교육과 해외선교에 대한 75년도 청사진을 펼쳐 보기로 한다.

교육

교육에 있어서 우리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영아부에서 노년부에 이르기까지의 각부 주일학교와, 평신도를 위한 유기적인 교육 마스터플랜과 이와 같은 계획에 의해 움직이는 (인물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중추 조성』이 우리교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의 당면과제라고 교육위원장 정기성 목사는 지적하고 있다.

『천국 일꾼을 키우자』란 표어를 내걸은지가 10여년이 넘었지만 아직 교육 마스터플랜도 설정되지 못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이와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교육연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신성종 강도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연구위원회의 금년의 목표는 『파괴지향적 교육에서 미래 지향적 교육을 위한 연구』라고 하신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① 교육현황분석 ② 교육방향제시 ③ 교육제도 검토 및 공급에 관해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각 책임지도 교역자들에 의해서 실시되어온 교육이 금년안으로 교육연구위원회에 의해 세워질 체계있는 교육 마스터플랜에 의해 보완될 것이다. 이는 우리교회가 지금까지 지나온 교육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큰 것이다.

교육연구 위원회에 큰 기대 성경학원-평신도 교육담당

또한 그동안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실시해 온 교육이 교회설립 20주년을 맞아 『성경학원』이 개원됨으로 그 방향을 평신도에게도 물려 평신도 교육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의가 있는 일이었다.

올해는 이에 더욱 박차를 가해 온교회가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중추를 조성할 계획아래 ① 평신도의 훈련 ② 교역자 제교육 ③ (국내외)평신도 선교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5월중에 교역자단기수련회와 7월중에 평신도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평소에 평신도교육을 위하여 성경통신강좌를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으로 지도자양성부, 성경학원 등을 계속하여 실시하고 있다. 특별히 성경학원은 금년부터 히브리, 헬라어성경도 가르치는 연구반을 신설하여 명실공히 성경학원으로 그 구실을 온전히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또한 구역예배를 통해 성경을 익히기 위해 신성증강도사가 구역공과를 체계적으로 집필하시어 구역예배시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올해를 계기로 주일학교와 평신도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앞으로는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같이 교회내의 교육외에도 성경학원은 농어촌교회를 위해 5월중에 교역자 50명을, 7월중에 평신도 150명을 초청하여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외 선교

교육과 아울러 금년도 우리교회의 큰 목표는 해외선교이다.

인터뷰

당회장 김창인 목사

선교 교육을 통한 신앙의 생활화를 강조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특유한 감화력과 목회로 초창기부터 20여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교회를 이끌어오신 당회장목사님을 뵈었다.

신년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신 목사님께 금년도 우리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금년 우리교회의 지향목표 또는 목사님의 목회방침은 무엇인지요?

답 : 그전 지난 1월달의 4번 설교를 통해서 다 이야기했지. 즉 개인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전도(국내외)에 더욱 힘쓰는 생활, 성경을 보며 실천하는 생활이지.

그러면 그와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답 : 어떤 계획이라기 보다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한결이라도 말씀을 보고 한마디라도 전도의 말을 건넬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어야 되지. 또 이러기 위해서 선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대열에 직접 참여하

고 성경학원이나 성경통신강좌에 우리 모든 교인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성장하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모든교인이 구원의 확신위에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다져지는 곧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효자 신자』가 되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목사님께서서는 금년에 (언제나 소원이지만) 더욱 국내외 전도에 힘을 쏟고 주일학교의 교육과 성경학원, 지도자양성부, 성경통신강좌 등을 통하여 교육에 더욱 중점을 두어 이들을 통한 『신앙의 생활화』에,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금년도에 목회방침이시란다.

우리총회의 성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답 : 있지 ! 무슨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에게 유익을, 후세에 복을 물려 줄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일하며 살라고 하고 싶군.

해외복음선교회 창립 6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교회는 두 곳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되었다. 은교우의 뜨거운 성원 아래 선교사업에 열중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서만수 선교사에 이어 오는 3월에 일본으로 파송될 홍종만 선교사의 파송은 금년도 해외복음선교회의 가장 큰 계획이며 우리교회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금년도의 가장 큰 목표로 선교회의 지면인구확대를 위하여 선교회원 1,500명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선교회는 이미 지난 1월 세계주일 (19일)의 선교의 주일을 계기로 많은 선교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우리와 우리교회의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사명을 자각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이날 창립된 『땅끝까지』에서는 앞으로의 해외복음선교회의 실질적인 행정업무 및 해외파송 선교사와의 연락관계등을 다루게 되며 오는 3월 중에는 선교 부흥회나 선교 세미나를 가지려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활발한 해외선교 활동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같은 일본에 선교사파송, 선교회원의 확대, 『땅끝까지』의 활동을 비롯한 1975년도의 해외복음선교회의 중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선교주일제정(실시)
- (2) 선교부흥회(3월중)
- (3) 선교응변대회(8월중, 전교회대상)
- (4) 주교자부 선교회조직
- (5) 『땅끝까지』조직

이외에도 선교보고, 선교발표회 등 많은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선교회의 가장 큰 소망은 영아부에서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온교인이 한마음이 되어 선교대열에 직접 동참함으로 물질로, 기도로 선교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일이다.

각기 관

이와같이 교회가 교육과 선교, 신앙의 생활화에 전력을 경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75년도에 교회의 각부서는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실천방안을 가지고 이 일에 힘을 쏟아 넣고 있는가?

구역권찰회—모이는일에

각구역의 권찰님들의 틀림없는 심방은 우리교회의 통일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임을, 동서남북 4부지역의 74구역, 2천여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구역권찰회 회장 백성룡 목사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시며 75년도에는 『서로 돌아 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라는 표어아래 첫뎌, 개인신앙성장에 협력하자. 둘째로 성도의 교제와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셋째로 교회사업에 적극 참여하자는 지향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선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여전도회—전도에 역점

또한 600여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여전도회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라는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을 표어로하고 전도하는 일에 직접, 간접으로 힘을 쏟을 것이라는 여전도회회장 김영화전사의 말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미자립교회인 성광교회에 대한 지원과 금년중으로 한 곳의 개척교회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와같은 일들을 실현하고 온 여성도들이 함께 전도하는 일에 힘을 쏟기 위해 회원의 수를 1,000명으로 배가하고자 하는 것이 금년도 여전도회의 큰 목표이다. 또한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 말씀을 강독하는 일에 신경을 써년말에 성도를 다독한 회원에게 시상할 계획이다. 그외에도 교회의 각종 행사에 마다 보이

지 않는 숨은 봉사자로 많은 회원들이 봉사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일일 것이다.

여전도회와 함께 전도에 힘을 쓰고 있는 남전도회도 금년중으로 한 곳에 개척교회를 세울계획을 하고 있으며 그 지원방법으로 금년에는 개척교회의 교역자생활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개척교회에서 비용을 담당하는 방법을 쓸 예정이다.

남, 여전도회 모두가 이같은 전도회사업에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망하고 있으나 많은 회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 문제는 두고두고 숙제로 남으며 하루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이 형수〉



해외복음선교회장

김 광 철 장로

온교인이 선교에참가

『우리의 목표는 일본을 위시한 전 동남아 일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는 이것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설이래 해외복음선교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계신 김광철 장로님은 이와같은 우리의 목표는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십니다.

해외복음선교회는 어느 개인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전교인이 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모아야 될을 강조하시었다. 특히 전교인의 끊임없는 기도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힘』임을 재강조하십니다. 『금년의 해외선교회의 목표는 우선 어떤 사업의 확장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일본에 파송된 선교사들에 대한 철저한 후방지원입니다. 전교인의 뜨거운 기도를 바탕으로 선교회원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우선 선교회원을 현재에서 배가하여 1,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한 실행위원을 보완 강화하여 실효있는 선교지원사업을 벌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현재의 두곳을 다지는 일이 중요하며 기틀이 잡히면 5년계획으로 3명의 일본선교사를 파송할 계획하에 있고 내년도에는 이종영 목사님 외에 선교사후보생을 1명 더 양성할실 계획이라고 하시며, 또한 안식년을 맞는 서만수 선교사의 교제선교사 문제도 해결할 문제임을 시사하였다.

올해에는 어떤 학생들로부터 은교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신이 『보내는 선교사』임을 자각하고 선교에 더 큰 관심과 협조가 있다면 더 바랄 것이없으시단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 기 성 목사



각분과별 기능강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플랜이 있어도 이것을 실천에 옮길 기구와 조직이 없으면 모든것은 공상으로 끝나며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담을 그릇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현실에 맞는 체제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 새 교육위원장 정기성목사님의 생각입니다.

『올해는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해로 잡았습니다. 교육위원회 내의 8개 분과—즉, 인사·행정·행사·교과·음악·제정·공보—의 기능을 강화해서 명실공히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도교역자들이 심방과 교육을 겸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한다. 올해는 인사와 행사분과에 중점을 두어 인력수급계획 및 행정체계일원화를 꼭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상설로 교사훈련기구를 구성하고 일정기간에 교사를 훈련 또는 교사실력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1~2회의 교사실적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교사는 지도자 양성부를 거친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전교회적으로 봉사인력조사를 실시하여 봉사할 수 있는 인력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교회 교육의 가장 당면문제로 영아부에서 노년부까지 각부 일학교와 평신도를 위한 유기적인 교육마스터플랜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목사님을 만난 교육위원회(지도교역자실)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교사현황판, 행사일정표등을 만든다 시느라고 부산한 가운데 활기와 의욕으로 활차 있었다.

◀설 문▶

1. 1975년도의 지향목표, 또는 지도방침은?
2. 목표를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3. 이와같은 일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은?

새신자부—정 기 성 목사

1. 첫째는 그물을 잘 치자는 것이다. 즉 새로 오는 어린이들도 실패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군으로 키 나가도록 다짐하는 것이다. 둘째는 타 부와 긴밀한 연락을 가지고 기성신자로 많은 새신자를 낳게하는 것이다. 세째는 새신자에게 맞는 교육방법을 개발해 보려고 한다.
2. ㉔ 교사 연수회를 통하여 자체내 교사자질을 향상 시키는 일이다. ㉕ 시각 교육교재를 살려 이해촉진을 도모한다.
3. 학생들의 심한 유희으로 안정된 교사진의 구축이 시급하다.

영아부—정 소 영 전도사

1. 『예수님처럼 자라라!』는 큰 표어 아래, 대담 표어 한가지씩을 정해 어린이·교사·학부모가 같이 힘써 지키게 되어 있다.
2. ㉔ 교사연수회, 독서를 통해 좋은 교사가 되기에 힘쓴다.
㉕ 믿음과 지혜로 키우는 어머니 교육하는 일에 힘쓴다(목요집회·좌담회등)

㉔ 주일예배에의 참석과 교회행사에의 참가에 힘쓰도록 강조·권면하고, 교육의 이해를 위해 시청각교재의 최대한 활용을 기한다.

3. 예산 부족으로 교육용 시청각기구나 놀이감의 미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큰 걱정이다.

유치부—정 연 희 전도사

1. 『올바로 키우자』표어아래 질적향상을 목표로 함.
2. 교사심방—교사간에 화목과 많은 사명 충성을 위하여(진행중)

설문을 통해서 본 주교각부의 올해계획

유년부—이 승 근 전도사

1. 어린이들의 질적·정적·부흥 및 교사의 자질향상.
2. ㉔ 봄 가을의 심방 (1개월간의 정기심방)
나 저녁예배를 통한 신앙의 훈련
㉕ 공과공부 준비시간 최대한용
㉖ 저녁예배시 교사 매일 기도회
3. 장소의 협소

초등부—김 태 현 전도사

1. 『영적성장』.
2. ㉔ 말씀으로 키우자. (성경읽기, 년3장이상암기)
㉕ 전도하자. (각반 출석인원1/3 이상 증가운동)
㉖ 헌신하자 (집일조드리기, 예배참석)

중등부—이 연 호 전도사

1. 『작은일에 충성하자』(마태25:23)란 표어아래
㉔ 말씀을 사랑하는 중등부
㉕ 기도에 힘쓰는 중등부
㉖ 선교하는 중등부
2. 1월은 『잃은양 찾기 운동의 달』, 성경퀴즈대회(예배소서)
3. ㉔ 『1인 2역』을 하는 교사님
㉕ 교육시설 미비

고등부—정 관 일 목사

1. 『말씀과 기도로 변화를 받고 내 친구와 가족을 구원하자』
2. ㉔ 한사람이 한사람 이상 전도하자.
㉕ 말씀을 바로 배워 말씀에 순종하자. (전학생에게 공과지배부)
㉖ 교사들의 질적향상(교사 준비교재 강화·예비공부 강화).
㉕ 기도하자(월 1회 철야기도)
3. 분반공부시간 부족으로 생활지도에 애로가 크다.

대학부—신 성 종 강도사

1. 대학부 교육의 재정립의 해로 면려회 중심의 체제를 주일학교 체제로 탈바꿈할 것이다(자세한 것은

여수문(제5호) p10~11

2. ㉔ 말씀에 근거한 신앙 및 생활교육

㉕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의거한 개혁주의교육

㉖ 5천만의 복음화와 동남아의 복음화를 위한 전적 헌신의 훈련

청년부—정 상 우 목사

1.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자)를 청년부 표어로 『자신을 확증하는 청지기』(고후13:5)와 『말은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고전4:2)의 두가지 지도목표를 세웠다.
2. 청년부 교육교과정을 3개년으로 하여 3년 동안의 청년부 교육과 면려 활동을 마친 회원은 청년부의 중요한 책임을 맡는 일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교회에서 맡겨주는 다른 부서에서 맡을것 충성할수 있도록하게 할 방침이다.

장년부—김 종 택 목사

1. ㉔ 배워서 알고 안것을 실천하는 균형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㉕ 회집의 증가를 힘쓰며 특히 남반의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
2. ㉔ 우선 필요할때 마다 유능한 강사를 모셔서 특강을 가진다.
㉕ 배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3. 회집하는 장소와 시간이 만족하지 못하다. 타 부서와의 관계로 밖에서 기다려야 하고 공부시간에 소음이 너무 심한것 같다.

노년부—김 재 창 목사

1. 『하나님 나라의 합격자가 되자』<시146:5>
2. ㉔ 매주 성경공부 (장년공과 요약)
㉕ 매주 성도의 친교(대화 및 간단한 다과회)
㉕ 자손 축복하는 방법연구(마지막 봉사의 기회 활용케)
㉕ 효도받는 비결(생활지도)
㉕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 가지고 준비하도록
3. 노년들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교재및 기술부족

3. 어린이를 이해하자

이 말은 매우 진부하게 들린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는 이 지식을 적용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겨울어린이성경학교의 출석률이 작년과 비하여 평균 28.5%(159명)가 증가되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할 일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급격한 수적증가가 이루어졌는지 분명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어린이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떠돌고 소란하였다고 편견을 받았다. 실사 어린이들이 그릇된 길로 나간다고 하여도 교육적인 면에서 볼 때 어린이 자신이 저야 할 책임은 하나도 없다. 도리어 이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어른들이 모두 저야 할 책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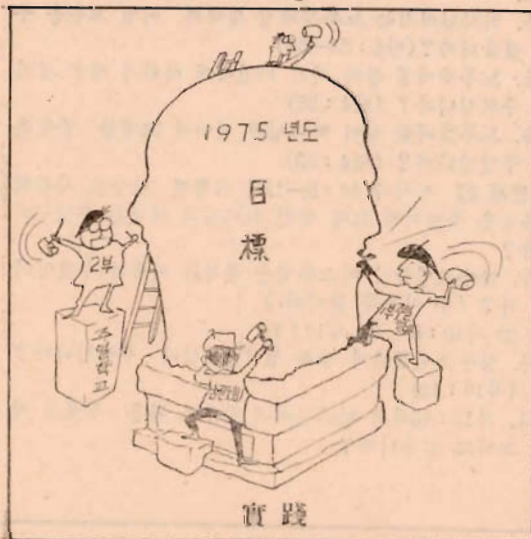
지금의 어린이들을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대의 어린이들이 지금의 어린이들인지도 모른다. 사회의 모든 가치관과 그들이 보고, 듣고, 접촉하는 환경의 대부분이 어린이들로서는 이겨내기 어려운 강한 유혹의 손길로 변해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리어 어른들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이같은 처지의 어린이들을 무작정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환경을 바로 알고 모든 악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천국일꾼으로 키워야겠다는 자책감과 의무감을느껴야 하리라 본다.

4.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

모두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잘한 것도 많지만 지면관계로 줄이기로 하고,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하여 꼭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 몇가지를 극히 피상적으로 적어 보았을 뿐이다.

국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번 겨울어린이성경학교를 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인간의 눈이 미칠 수 없는 은밀한 가운데 충성의 맘을 흘린 여러 교사들의 상이 크리라는 것도 확실히 믿고 있다. <표>

총 결 만 평



컬럼

이유 있는 단절(斷絶)

정 은 표

달의 표면이 어떻게 생겼는가는 가서 본 사람만이 안다. 본 사람의 설명이나 사진만으로는 듣는 사람이 실감하기에 부족하다. 사과와 맛은 먹어본 사람만이 안다. 아직 사과를 한번도 먹어보지 못한 어린아기에게 그 맛을 사실처럼 느끼게 한다는 것은 먹어보게 하는것 외에는 불가능하다.

육체의 건강이 얼마나 귀하며 필요한 것인가를 실감하게 되는 것은 가장 건강할 때가 아니라 육체가 병들었을 때이다. 자유(自由)가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하며 필요한 것인가는 자유를 맛보며 누리고 있는 그 순간이 아니라 자유를 잃거나 제한당할 때 실감하게 된다.

우리는 이처럼 현실 속에서 사실에 대한 실재를 경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있는 반면 실제의 경험을 토대로 실제와는 정반대되는 사실을 경험함으로써 실제의 진정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있다.

어느 시대나 공통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현실을 보는 눈이 일치 되기에는 엇물린 틈이마치처럼 어떤가 항상 어색한 점이 있다. 한 세대는 사실적인 것만을 추구하려 하고 다른 한 세대는 경험에 근거한 역설적인 사실만을 강조하려는 까닭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젊은세대가 현실을 대할 때에는 우선 손에 매스(mass)부터 들고 자신의 막대한 것처럼 일단은 모든 현실이 부조리로 인한 미완성품으로 간주하여 실재를 드러내는 수술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뜻에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상대에 대하여는 방관자, 기회주의자, 혹은 현실 감각을 상실한 무기력한 자로 분류한다.

이같은 젊은이의 생각이나 태도는 사실로 인정하여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도 다분히 있다. 그러나 자칫하면 로마의 식민지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끝내 외면한 듯한 예수님을 불과 며칠사이에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어 십자가의 처형장으로 몰아세운 유대 백성처럼 수면 밑에 잠긴 현실의 진정한 모습을 속단으로 지나쳐 버리기 쉬운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러기에 현실의 모든 부조리를 포용하여 내부에서 용해(熔解)시켜 버릴 수 없는, 자기의 뜻과 주장만을 높게 싸올리는 폐쇄적인 젊은 지성이란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현실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결과는 대화의 문을 좀 더 활짝 열지 못한 기성세대에도 일부는 책임이 있다고 본다.

교리 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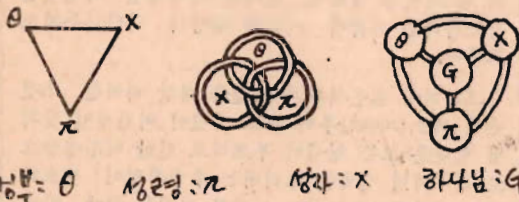
【제 5 문】 하나님 한분 이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해답】 하나님은 한분 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신6:4; 령10:3-10; 왕상8:60; 고전2:5).

【제 6 문】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해답】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나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니라(마28:19-20; 요일5:7).

《설명》 이 삼위일체 교리는 사람의 지식이나 생각으로 완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께 속한 신비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다음의 세 그림은 삼위일체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약간의 유익을 줄 것이다.



【문제 1】 다음 성경을 읽고 □안에 적당한 말을 넣으시오.

가. 창3:14-15/하나님은 □□□□□□이시며 □□□□의 하나님, □□의 하나님, □□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나. 요8:58/예수님은 □□□□□□이 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다. 제1:8/하나님은 □□와 □□□□이십니다.

라. 롬14:10/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 앞에 서리라.

마. 마1:20-21/“예수”란 이름은 주의 □□□□가 요셉에게 현몽한 것으로 그 뜻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뜻이다.

바. 히13:8/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하십니다.

사. 요1:3/□□□□이 성자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문제 2】 다음 묻는 말에 답하십시오.

가. 마12:31의 성령을 방해하는 죄란 어떤 것입니까?
나. 요14:16, 26에 나타난 보혜사의 하는 일 두가지만 쓰시오.

다. 고전2:9-13에서 계시의 근원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 롬15:18-20에 기록된 바울의 선교정책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마. 롬8:9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 시139편을 읽고 성령 “또는 주의 신”이 어떤 분이신지 열자 이내로 답하십시오.

【문제 3】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다음 성경을 읽고 답하십시오.

가. 창1:1; 고전8:6; 히12:9; 엡3:14-15; 약1:17= 성부는 □□□□□□□□□□하셨습니다.

나. 신32:6; 시63:16; 64:8; 령3:4; 말1:6; =이שראל 백성의 □□□□□□□□□□되심.

다. 마5:45; 6:6-15; 롬8:15; 요일1:3=영적 자녀인 믿는자의 □□□□□□□□□□되심.

라. 요3:1; 히14:2-3=성자는 □□□□□□□□□□의 역할을 담당하심.

마. 요15:26; 요15:7=성령은 □□□□□□□□□□와 □□□□□□□□□□로부터 발(發)하십니다.

【제 7 문】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해답】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하신 바에 따라 정하신 영원한 목적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니라(엡1:11; 령4:27-28; 시33:11; 엡4:22-23; 롬11:6; 령2:23)

《설명》 하나님의 작정이란 그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말하며 이 작정을 ① 창세전에 ② 그리스도 안에서 ③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정하신 것으로써 ④ 변하지 않는다.

【문제 1】 다니엘 4장을 읽고 다음 묻는 말에 답하십시오.

가.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습니까? (단4:31-33)

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단4:35)

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단4:35)

【문제 2】 이사야 10:5-19에 기록된 앗수르 사람의 자람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가. 앗수르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이유를 들어라.)

① 사10:6 ② 사10:7

나. 앗수르인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사10:12)

다. 사10:15에서 하나님께서 앗수르 왕을 무엇에 비교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구역예배에서 십계명의...□
 □...서론을 공부하여 왔다. 즉 십계명의 목적...□
 □...이 첫째는 순종의 사람 둘째는 사랑의 사...□
 □...림이 되는데 있음을 배웠다. ...□
 □...그뿐 아니라 십계명의 서론(출20:1-2)에...□
 □...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창조...□
 □...주 하나님으로서 그의 말씀은 완전하며...□
 □...(시19:7) 우리의 등불이 됨(잠6:33)...□
 □...배웠다. 그리고 율법의 목적은 크게 세가...□
 □...지로서 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고(갈3:24) ② 거울과 같이...□
 □...우리의 죄를 보여주며(롬3:20) ③ 하나...□
 □...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다는 점이다. 그러면 이제 십계명의 내용...□
 □...을 공부해 보기로 하자. ...□

□ 제 1과/제 1계명
 □ 성 경/출 20:3
 □ 찬 송/새 411장(합385장)

제 1계명은 『너』는 즉 제 2인칭 단수로 시작된다. 즉 십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관계되는 것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적하여 말씀하심을 뜻한다. 제 1계명은 크게 두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 외에(삼하22:32)” 우리의 하나님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다음의 8가지 뜻이 있다.

- 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왕상18:39).
- 나. 하나님을 우리의 섬길 자로 택하는 것을 말한다(수24:15).
- 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계약관계에 들어감을 말한다(사44:5; 55:3).
- 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림을 말한다(시89:7; 29:2)
- 마. 하나님을 두려워함(혹은 경외)을 말한다(신28:58).
- 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삼하22:3).
- 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시31:23).
- 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수2:24).

2. 제 1계명의 두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면 “내 앞에서” <출20:3의 한국어 번역에서 이 귀절이 빠져 있으나 찬송가의 십계명에는 있음>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나의 얼굴 앞에서 즉 하나님의 면전에서”라는 말이다. 이는 우리가 비밀리에 다른 신을 섬긴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므로 이것은 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하는 일임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까? 첫째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다른 신이란 실은 사람이 만들어 낸 거짓 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참된 신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무

구 역 공 과

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지를 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거나 ②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거나 ③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으로써 이들은 다 우리의 거짓 신, 즉 우상이 된다.

□ 제 2과/제 2계명
 □ 성 경/출 20:4-6(참고: 신4:15-19)
 □ 찬 송/새 409장(합396장)

제 1계명에서 우리는 거짓 신을 섬겨서는 안됨을 배웠다. 제 2계명은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거짓된 방법으로 섬겨서는 안됨 것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방법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돌이나 나무로 새기는 일이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요4:24) 섬겨야지 눈에 보이도록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①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요4:24)할 뿐 아니라 ②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고 이는 조각보다는 이를 만든 조각가가 더 위대하고 집보다는 집을 지은 건축가가 더 위대한 것인데 사람보다 낮은 것을 섬기는 어리석은 일과 같기 때문이다(히3:3). 또 비성경적(출20:5; 레26:1; 신16:22; 시97:7)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새겨진 형상(또는 우상)을 섬겨서 안됨 이유가 무엇인가? 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출20:5; 34:14). ② 하나님은 아비의 죄를 삼사대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출20:5; 렘5:9). ③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가 되기때문인 것이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친대까지(즉 자손만대로) 받을 사람인가? 제 2계명에서 두가지를 행하는 사람은 자손 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했다. 즉 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자손 만대에 베푼다. ② 사랑의 표현인 순종하는 사람 즉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요14:15)”고 하신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푼다. 그러기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삼상15:22)”고 한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신앙심에서 지키고(참고—히 11:4의 믿음으로 제물을 바친 아벨), 즐거움으로 지키면(사1:19) 하나님은 그의 은혜와 복을 우리의 자손 만대까지 주실 것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 있는 자가 되자.

□ 이 구역공과는 앞으로도 매월 계속하여 실리게 됩니다.
 <편집자>

중·고등부 부흥회

—빛의 사자들이 되라—

중등부와 고등부는 합동으로 학생부흥회를 갖는다.

오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저녁마다 모이게 될 이 부흥회는 「빛이 사자들이 되라」는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을 표어로 하여 성도교회에서 시무하는 용한흠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열리게 된다.

「구원의 확신」(진도가 무엇인가?) 「진도의 유익」등 제목으로 말씀하시며, 진도하는 중년의 학생들이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번 부흥회 2일째로 신앙영화 『역동』의 감상이 있으며 마지막 날에는 찬양기도회를 가진 계획이다.

남전도회 특강

남전도회는 지난 2월 9일 오후 2시부터 본당에서 사이비종교비판 특강을 가졌다.

이날의 특강은 『여호와의 증인과 통일교』에 대한 비판으로 탁명환교수가 연사로 수고하셨는데 시간상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겨울어린이 성경학교

제12회 겨울어린이 성경학교가 지난 1월 20~23일까지 열렸다.

주일학교 1부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금일의 기술성경학교는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믿음과 생활』이란 주제하에 열렸는데 이에 참가한 학생들일 연인원 2,275명 (일평균 694명), 교사 522명(일평균 131명)이었으며 총 29만여원의 경비가 소요됐다.

전희문 장로—서귀포 서남교회로

우리교회에서 오랫동안 시무하던 전희문 장로가 제주도 서귀포의 서남교회를 맡아 떠나시게 되었다. 환갑이 넘은 많은 나이에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고 싶다는 의욕에 불타 3년전 총회신학교에 입학하였고 지난 2월 20일 졸업을 함과 동시에 서귀포 서남교회의 전도사로

부임하여 가게된 것이다.

이 서남교회 교인들은 얼마전 바른 신앙노선을 찾아 오셨다고 함동측 노회에 지도해 달라는 청원을 하여 읍으로세 노회에서 이 청원을 받아들여 흥근심목사를 당회장으로 허락하였으며 우리 교회는 이 교회를 보조하기로 하였다.

유치부 역대부장단 좌담회

유치부에서는 지난 2월 9일 오후 2시 30분 부터 유치부실에서 어린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하여 역대유치부장단을 모시고 『유치부 연혁작성 및 유치부 발전에 대하여』란 제목하에 유치부장 조현명 장로의 사회로 2시간에 걸쳐 유치부 어린이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다짐하면서 진지한 대화로 진행되었다.

모든 문서정리에 주력 중인 유치부에서는 이번 역대 부장단의 산역사를 통하여 연혁을 더욱 정확히 정리하게 되었고 주요사업도 아울러 기재키로 하였으며 유치부를 위하여 주신 말씀은 유치부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자료가 되었다.

유치부에서는 과거 「충현20년사」전찬시 자료부족을 직설히 느낀바 있어 연혁을 위시한 유치부 부칙 기타 모든 문서를 정비하기 위하여 『저지사항 및 결의사항 추진현황』기록부를 체크해 나가면서 문서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하신 분은 다 음과 같다. 최 석주 장로, 윤 용규 장로, 박기현 원사, 조진근 집사.

영아부—목요특강

지난 1월 16일, 23일과 2월 첫째요일인 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유년부실에서 40여명의 영아부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기독교 가정의 생활원리』라는 제목의 특강을 윤영탁 전도사의 강의로 들었다 또한 2월 6일에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이원영 교수가 육아합동 『아동 발달』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앞으로도 이와같은 특강을 매주 목요일마다 계속 가질 계획이라고 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속에 많은 학부모와 결혼을 앞둔 여성들이나 신혼여성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새 사명을 맡으며

서귀포에 개척교회로

전 회 문 장로

인간에게는 누구나 동기와 재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나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알고 믿고 생활하고 싶다. 내가 환갑을 지난 연로한 나이에 신학공부를 시작하기 위하여 총회신학교에 입학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좀더 분명하게 알고 싶어서였다.

그러던중 어언간 3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졸업을 앞두고 보니 아직 미숙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때든지 가서 일해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하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나로서는 걱정도 되지만 아무것도 열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라(빌 4:6)는 말씀만 믿고 매일 간구하는중에 작년 12월 중순에 총회신학교 김의환 목사님한테서 서신이왔다. 제주도 서귀포에 가서 개척교회를 세울 의사가 없느냐는 말씀이었다. 몹시 바라던 일이었으나 그자리에서 확답을 못했다. 그것은 지역적인 관계와 그 때에 마침 본교회의 당회장 목사님께서 해외여행중이었기 때문에 귀국하신 후에 당회의 허락을 받고 확정을 하였다.

급한 재가 정든 본교회를 잠시 떠난다는 아쉬움은 있으나 당회장 목사님과 당회원이하 전체 교인들이 항상 배후에서 기도모써 격려하여 주실 것을 믿고 복음을 들고 오직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것을 믿어 믿음으로 떠나려 한다.

◎ 성경통신강좌에 대해 알립니다 ◎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성경통신강좌는 3단계로 나누어 실시됩니다. 즉 1단계는 『성경 친구약문제』—현재 매월 교회사무실에서 배부 2단계는 『포리문제』—현재 월간 『충현지』에 매월 연재중이며, 3단계는 『성도의 생활문제』—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중인 1단계와 2단계 2가지 중 자기의 능력이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또한 2단계 『포리문제』의 답안지는 별지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답안지에다 답을 써서 성경학원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답안용지가 더 필요한 사람은 성경학원 사무실에 요청하면 됩니다.

새신자부—자택 교사연수회

새신자부에서는 지난 2월4일(토) 오후 6시부터 새신자부실에서 12명의 교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새신자부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회를 열었다.

이날 강의된 내용은 『어린이 심방』에 관한 중요성과 그 방법 등이었으며 강의는 유년부의 이승근 전도사가 담당하였다.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면 언제든지 이와 같은 자체교사 연수회를 열어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리라고 하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활동으로 본받을 만한 일이라고 본다.

땅끝까지회—철야기도회

지난 1월 29일에 발족한 선교사업 돕기 위해 조직된 땅끝까지회는 2월22일 일본으로 파송 될 홍종만 목사를 위해 특별철야기도회를 가졌다. 또한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을 절감하고 매주일 저녁에배진 6시15분부터 45분까지 30분간 2부교사실에서 선교사를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 회원이외에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여호수아전도대 발대식

청년부는 지난 2월 16일 오후 청

년부실에서 오래동안 계획하여 오던 『여호수아 전도대』를 조직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전도하는 청년부』라는 목표아래 청년회를 온통 전도요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발대된 이 전도대는 앞으로 전도부와 유기적인 협조아래 결신자처리문제, 매주일 전도실시등의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중등부—전도대훈련

중등부는 지난 1월 19일 김호환 선생을 강사로 모시고 또한 전도대훈련을 가졌다.

매월 첫주에는 이와같은 전도대훈련을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리라 하는데 날이 풀리는 4월부터는 강의 위주의 훈련보다 교회 밖으로 나가 실제 전도를 실시하며 실습을 통한 전도훈련을 실시하리라고 한다.

청년신앙대부흥회

서울대학교종교독학생회가 주최하는 청년신앙대부흥회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에 지난 2월 3—7일까지의 부산집회를 마치고 지난 2월 17—21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우리교회 김창인목사님은 부산, 서울두집회에서 저녁부흥회의 강사로 수고하셨다.

□□□ 토막소식 □□□

◇ 제일성가대는 2월 16일 첫 월례회를 열고 회칙의결로 앞으로 큰 발전이 기대된다.

◇ 제일성가대는 오는 부활절을 맞아 칸타타 『승리의 그리스도』를 연습중이다.

◇ 여성성가대는 2월 15일 대학에 진학한 자녀를 둔 대원들을 위해 축하회를 열고 대원모두가 전심으로 축하했다.

◇ 남전도회는 오는 3월 15일, 16일 양일간에 걸쳐 지방교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 남전도회는 오는 부활주일만에 노인절인들을 구제하며 이들에게 전도도 할 계획이라고 한다.

◇ 남전도회는 2월 9일 헌신예배를 드렸다. 『전도자의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김재창 목사가 설교.

◇ 여전도회는 앞으로 개척교회 돕는 일을 위해 더욱 더 힘을 계속 이라고 한다.

◇ 구역전철회는 3정에 대심방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도에도 힘을 것이라고 한다.

◇ 성경학원에서는 2월 10일 1975년도 제 1 학기를 개강하였는데 금년에 신설된 성경연구반도 이날 개강하였다.

◇ 유·초등부는 1월 26일 각각 반별 찬송가부르기 대회를 열어 교사와 학생간의 간격을 좁혔다고 한다.

◇ 유·초등부는 2월을 일제심방의 달로 정하고 모든 교사들이 심방에 열을 쏟고 있다.

◇ 중등부는 2월 9일 『십일조와 성수주일』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열었다. 강사는 이종영 목사.

◇ 중등부는 1정 26일 교사 4명, 학생 59명이 대방동 공군병원으로 병원전도를 나갔었다.

◇ 고등부는 2월 9일 각 조장들의 지휘로 반별 찬송부르기 대회를 가졌다.

◇ 대학부는 장기결석자를 위한 대심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 청년부는 2월 월례회로 『마음의 눈을 밝히자』를 정하고 매일기도·매일 성경읽기·모든 집회에 참석 등을 실천방안으로 세웠다.

교사 모집

△△ △△

교육위원회 인사분과에서는 주일학교 각부에서 성경을 가르칠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교회 세례교인으로 누구나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기를 원하는 분이 됩니다. 단 주일학교 교사자격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지도자양성부에서 앞으로 수련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이름, 성별, 생년월일, 현주소, 전화번호, 구역명 등을 적어서 교회사무실에 내어 주십시오.

기자석

○...「충현」지가 월간으로 바뀌게 되어 무척분주하다. 원고청탁을 할때마다 서두르는 성화에 눈살을 찌푸릴 때면 눈물이 핑그르 돌기까지 한다. 그래서 요즘은 자그마한 일에도 조바심부터 생기는가 보다.

제발 비노니 우리 충현 식구들을 위해서 자비심을 베푸심이 어떨는지? <황>

○...「충현」지는 은유함과 강진함을 아울러 갖는것 같다. 「충현」지가 신뢰받을 수 있는 의유내강으로 우리 모두에게 공감과 친밀감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제한된 지면이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 특집은 내용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간구하며 애독자 여러분의 구중과 격려를 기다린다.

○...또, 「충현」의 눈과 귀로써 권태와 고통에 시달리기 쉬운 우리들에게 좋은 활력소가 되기를 바라며 그저 힘껏 뛰어볼 작정이다. 주님께 합당하기를 빌며... <신입기자-재>

○...입춘대길(立春大吉), 글자 그대로 한번쯤 커다란 길운을 빌어본다. 올해도 화사한 봄을 맞게 될게다.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봄은—글썸다. 아마도 겨울 다음에 오는 것이 진리일게다. 뒤편 엮혔던것들이 봄의 손길이 닿는 대로 스러졌을 좋겠다. 봄을 노래할 때를 맞은 것이다. 더욱 희를 기

뎌해 가는 (충현)지도 알차게 다듬어지길 원하는 맘이다. 아직 이른(?)탓인지 좋다. 고만 햇빛을 피고쁘다.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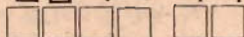
○...또 이야기해야겠다. 광고말이다. 교회 구석 구석에 별로 이쁘지도 않은 행사및 집회안내 광고가 나붙어 있다. 실력(?)있는 부서에서는 멋진 광고란에 붙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부서에서는 16절지에 광고하기도 한다. 「멋있는」 광고경쟁을 하는지? 「멋없는」광고경쟁을 하는지? 한곳에 일괄하여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 힘이 없는지? 아니면 그다양한 광고를 쫓아다니며 보는 즐거움(?) 때문인지?

○...성경통신강좌를 실시하여 많은 교우가 참여하고 있다. 헌데 어디다 답안지를 제출해야 하는지 성경학원에 제출하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성경학원사무실을 찾아가 제출하기에는 일반 평신도로서는 아무래도 문턱이 높은 것 같다.

○...본당 입구에 각구역별 통신함이 있다. 주로 현금봉투를 꽂아 놓고 있는데, 이게 또 묘한 일이 있다. 구역표시가 되어 있는 곳을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 말이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주의하자. 「작은 일에 소홀히하는 자가 어찌 큰 일을 할 수 있으랴.」

<형>

편집하고 나서



뜻있고, 관심있고, 의욕있는 사람, 언제든지 환영한다. 편집실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 <형>

사령(辭令)

면, (충현)지 편집위원

홍 중 만

1975년 2월2 일부

《표지설명》

1970년 9월, 인도네시아로 서만수 선교사 내외가 처음 파송된 이래 두번째로 오는 3월, 일본 선교사로 파송될 홍중만 선교사의 모습이다

출발을 불과 몇일 앞두고 여러가지 준비와 마지막 점검에 바쁜 홍중만 선교사가 앞으로 일본 선교의 본거지가 될 시모노세키(下關)에 있는 하관교회에 도착하게 되던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60만 재일교포(비공식 거주자까지 합하면 약 100만정도)에 대한 선교를 실시하게 될 것이다.

6남매(2남 4녀)중 1남 3녀만 동반하게 되며 1남 1녀는 한국에 남아 있게 된다고 한다.

◇ 촬영 : 송기홍 집사

○...특집 「1975년은 이렇게!」를 계획하며 교회의 여러 어른들을 간접으로, 직접으로 만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느낀 것은, 어떠한 행사를 크게 벌이는 것보다 이제에는 그동안에 벌여온 사업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다지면서 내적인 충실을 기하려는 노력을 엿 볼 수 있었다. 교회와 각부 주일학교, 일반교부들간에 번지는 성경공부에 관한 보다 높아진 관심이 이를 잘 증명하고있다.

○...기관의 계획중 몇군데 빠진 것을 유감롭게 생각한다. 특히건축관계가 빠진 것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궁금히 여기는 일인 만큼 가능한한 빠른 시일 안에 건축관계의 자세한 면을 알려줄 것을 약속한다.

○...많은 계획을 이야기하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바로 나다. 『내』가 없이 이 모든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는 『나의교회』고 (우리의 교회)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를 생각해 보자.

○...올부터 「충현」지가 월간으로 되었고, 또 편집실도 넓고 환한 곳으로 옮겼고, 편집위원도 보강되었고, 남은 것은 여러분의 자각없는 비평과 격려다.

○...다음 호부터는 발행일을 앞당긴다. 그래서 명실공히 「월간」지로서의 구실을 다할 것이다.